

<2018년 8월 26일 주일말씀>

환난과 고난 후에 영광

본 문 누가복음 17장 25절

『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』

누가복음 24장 26절

『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』

- ◎ 세계 각 나라 여러분들, 한 주일 동안 잘 있었습니까?
지금은 전 세계의 3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.
- ◎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<시대>에 대해 말해 주고,
그리고 <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>도 알려 주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◆ <지금>은 늘 ‘잔칫집 역사’입니다.
- ◆ <지난 십자가 기간 때>는 월명동에 오면 선생이 없으니,
모두 ‘하나님, 성령님, 저 왔어요. 적적하지만,
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것 보고 가요.’ 하며 기도하고 가지 않았습니까?
- ◆ 그때는 <상상의 세계, 관념의 세계>에 살았는데,
이제는 ‘**지나가다 맞는 시대**’가 되었습니다.

그야말로 영광의 시대요, 기쁨의 시대요,
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시대로 뒤바뀌었습니다.

- ◆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.

20여 년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된 것입니다.

오늘 말씀대로 <환난과 고난 후의 영광>입니다.

<하나님이 보낸 자> 역시, 환난과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갑니다.

- ◆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, “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,
그 시대에게 버린 바 될 것이다.” 했습니다.

그 말씀대로 이 시대에도 <하나님이 보낸 자는 시대에게
버린 바 되었습니다.

어디까지 버렸는가 하니,

최고 죄인들만 사는 곳에 버린 바 되었습니다.

- ◆ <환난과 고난>은

선지자 때도, 사사 때도, 중심인물 모세나 다윗 때도 받았고,
그리스도는 가장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.

지구상의 최고 영광의 사명에 해당되는 만큼, 고난을 받습니다.

- ◆ <예수님>은 그 고난을 ‘죽음’ 으로까지 받았습니다.

<육신이 죽는 고난>으로 버린 바 되었습니다.

그러나 영으로, 곧 ‘영적인 세계’ 에서 승리하시고,

메시아로서 2000년 동안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펴 왔습니다.

◆ 그 2000년 역사 동안의 희망은

“<예수님>이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역사를 펴신다.” 함이었습니다.

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대로 안 왔습니다.

<새로운 시대>이니, ‘새로운 사람’ 이 옵니다.

◆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

<하늘>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‘땅’ 에서 옵니다.

신약 때 예수님은 아예 그 육신이 죽음으로 버림을 받은 바 되었지만,
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.

그리고 “다시 오리라.” 한 약속대로

하나님은 ‘땅에서 한 사람’ 을 보내시어 역사하십니다.

<사람>이신 ‘그리스도’ 입니다.

◆ 그러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새 시대에 한 사람을 보냈으나,
시대가 무지한 고로 그 역시 ‘버린 바’ 되었습니다.

* 잠시 쉰다.

◆ 설교 전 성령님께 고하기를,

“설교하다가 눈물이 날까 봐 못 하겠습니다.” 했습니다.

왜요? 너무도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받으며 끌려다니고,
칼을 차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해하려고 하는 역경 속에서
버림받고 살던 때를 생각하면,

- <땅>으로는 분해서 울컥하고

- <하늘>로는 감격해서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

- ◆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**무지해서** 그러합니다.

<예수님 때>도 그러했습니다.

하나님은 “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리라.” 말씀하시고
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셨으나,
<기다리던 자들>은 적나라하게 예수님을 멸시하고
배신해 버렸습니다.

- ◆ <이 시대>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셨으나,
세상이 버리고, 배신하고, 악평하고, 짐승같이 대했습니다.

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도,
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왔습니다.

그리고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별말을 다 했어도,
낙심하지 않고 ‘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.’ 했습니다.

그리고 시대 선고를 받고 가면서도,
그때도 변함없이 주를 좋아하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며
<나는 행복하다> 노래도 지어 불렀습니다.

* 참고: <나는 행복하다> 가사

사람들은 나를 보고 불행하다 말들 하지만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
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이란 영원히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야
성자, 나는 행복하지요 성자 말씀하시길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

- ◆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,
결혼하면 ‘남편’ 이 있으니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며 살듯이

<시대 선고를 받았을 때>도 서로 사랑하면 되니,
걱정 없다고 했습니다.

- ◆ 그때 시대 선고를 받고서 성자에게 “나 사랑해요?” 하니,
성자는 내가 숨을 못 쉬게 만들면서
“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.” 고 하셨습니다.

그 말을 듣고, 그러면 1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.

그리고 ‘내가 사랑하면 끝나는데, 그까짓 환난이 문제야?
십자가가 문제야? 고통이 문제야? 혼자 있으니까 개인으로
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만나고 너무 좋다.’ 했습니다.

- ◆ 그때 성자는 내게 말씀하시기를,

“나도 네 육신을 쓰고, 너와 같이 십자가를 진다.
둘이 재미있게 시대 역사를 감당하고, 뜻을 펴고 가자.
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,

“밖에서는 네 몸이 된 자가 성령 역사를 해 나가니 걱정 말아라.
따르는 자들이 다 나가지도 않고,
너와 같이 고난의 길을 간다.” 했습니다.

- ◆ 그리고 성령님도 내게 말씀하시기를,

“이 10년의 시간을 귀히 사용해라.
개인으로 만나는 것은 너무 어렵다.
내가 죽을 때까지 1m 밖을 벗어나지 않고 네 옆에 있겠다.”

하셨습니다.

- ◆ 그리고 내게 약속하시며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,

“너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다.

그래서 네가 떠나면 나도 하늘나라로 간다. 가는 날은 똑같다.”

하셨습니다.

- ◆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, 시대에게 버림을 받아도 행복했습니다.

왜요? <간판>이 있기 때문입니다.

이 <간판>은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간판입니다.

- ◆ 성자는 이 간판을 내게 주시며,

“지구 세상의 마지막 간판이다.” 하셨습니다.

그때를 생각하며 늘 기뻐하고 좋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.

- ◆ 환난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,
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사랑했습니다.

그리고 예수님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.

그러니 예수님이 “넌 남자인데 나 좀 생각해 줘라.” 할 정도였습니다.

그렇게도 좋아하고 사랑하며 했습니다.

* 잠시 쉰다.

- ◆ <그리스도>는 고난과 환난을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갑니다.

<시대 하와>도 그러합니다. -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.

- ◆ 사명이 큰 만큼 환난과 역경을 받습니다.

그것은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, 못 할 정도입니다.

- ◆ <선생이 없을 때>, 시대 하와도 이런저런 환난과 역경을 받고, 버림을 받고 때림을 받았습니다.

그러나 환난을 이기고 진리의 말씀을 퍼부어 주며
뜨거운 성령 역사를 일으켰습니다.

성령의 불에 찔려 녹을 정도로
뜨겁게 주를 증거하고 외쳤습니다.

- ◆ 이같이 했기에 <역사>가 살아서 움직이고,
<따르는 자들>도 ‘진리의 말씀’ 과 ‘성령의 불’ 을 받아
열심히 뛰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.

- ◆ 그동안 섭리사는 민족적으로 환난과 고통이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.

그러니 선생뿐 아니라,
여러분들도 각종 환난과 어려움,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.

반만년 역사 중에 이 같은 환난은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.

그래도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,
전도도 하고, 환난과 어려움에 쓰러진 자를 붙잡아 주면서 왔습니다.

- ◆ 민족이 막고, 각양각색으로 심하게 막으니,
<주>는 하나님께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.

결국 하나님은 <사명자의 기도>를 들으시고,
행한 대로 갚아 주고 계십니다.

우리가 이겼기 때문입니다!

안 이겼으면, 하나님도 갚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.

- ◆ 남편은 누가 자기 부인에게 손을 대면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.

특히 성자는 “너를 건들면 내 가만히 있지 않는다.” 하시며,
상상도 못 하게 세계를 흔들어 버리셨습니다.

결국 행한 대로 받고 다 끝났습니다.

받고서,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.

<말씀 마무리>

- ◆ 환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,
<주>는 **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실 일과 버린 자들이 해야 될 일**까지
다 해 주고 왔습니다.

- ▶ 하나님의 최고 창조 목적을 이루고,
<신부로 변화된 영들>을 황금성 천국으로 휴거시켰습니다.

하나님은 자신을 절대 사랑하고,
육 일생 동안, 영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라고
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, 그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.

- ▶ 140권 분량의 책을 쓰고, 5만 잠언을 쓰고,
그리고 기도해서 해야 될 일들까지 다 했습니다.

- ▶ <월명동 자연성전, 하나님의 궁>도
모두 하나님의 구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.

▶ 그 좁은 관 같은 곳에 살았어도,
운동하고 뛰고 달려서 건강하게 나왔습니다.

▶ <주>가 가는 나라마다 버렸어도,
복음을 넣어 주고 할 일을 다 했더니,
이제는 각 나라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따라옵니다.

결국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후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.

- ◆ 오늘 말씀은 아주 크고도 큰 말씀입니다.
그 모든 것은 앞으로 1000년 동안 해도 끝이 없습니다.

<후대>는 선생이 씨 놓은 시대 성경을 보면서

- 1000년 동안 각종으로 설교도 하고,
- 또 ‘이와 같이 나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
변함없이 사랑해야지.’ 할 것입니다.

- ◆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,
“고난이 끝났으니, 이제는 <영광의 세계>에 들어가자.” 하셨습니다.

- ◆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,
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 나가며 끝까지 하니,

결국 살아나서 모두 ‘영광의 역사’를 맞게 되었습니다.

- ◆ 하나님은 많은 버림을 받고, 불신을 당하고, 종교 전쟁과
각종 쓰라린 일들을 당하시면서 6000년간 역사해 오시다가

이제 **마지막 영광의 역사, 일주일 중에 일요일 같은 역사,**

1000년 혼인 잔치 역사를 맞게 된 것입니다!

- ◆ 환난과 역경 가운데 끝끝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
지금까지 와서 살았으니,
하나님도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좋으시겠습니까?

이 시대가 <영광으로 나타나는 시대>가 됐으니,
이제 모두 멋있게 살기 바랍니다!

- ◆ 지금은 <부활의 역사>의 때가 아니겠습니까?

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광 받고 누리는 것이 남았으니 낙심치 말고,
<부활>도 다 완전하게 되어야겠습니다.

<부활된 사람>은 부지런히 영광도 받고, 계속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.

- ◆ 모두 환난과 고난을 참고 견디느라 수고 많았습니다.
참고 견디며 끝까지 오기를 정~말 잘했습니다.

지금 자기에게 처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,
그것은 가볍게 넘기고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혀 가길 축원합니다!